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4, December 2018, pp.170–191.*
Copyright©20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고전고고학(古典考古學) 재론(再論)

이민석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
Corresponding Author : museum1@korea.kr

국 문 초 록

그간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전고고학을 소개하는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개념 정립과 학문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서양에 비해 고고학이 늦게 태동한 한국고고학은 초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전을 통하여 고대사 및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고전,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의 고전과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의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대 정치체의 형성, 국가의 교체와 국가간의 교섭과 교류 등에 대해 각론이 많으며, 풀리지 않는 쟁점이 즐비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고고학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전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옛 책의 분류법을 따른 과거의 기록물'을 말한다. 고전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고고자료를 해석하고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고전고고학이다.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그 중 『공자가어』를 통해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전 DB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고고자료, 고전, 고전고고학, 공자가어, 빅데이터

투고일자 2018. 09. 29 ● **심사일자** 2018. 10. 25 ● **게재확정일자** 2018. 11. 09

Ⅰ. 머리말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필자는 지난 2016년 태인(泰仁) 방각본(坊刻本)을 주제로 하여 기획특별전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고전(古典)을 접하게 되었다. 태인 방각본은 정읍 태인 지역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민간 출판·인쇄업자가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을 일컫는다. 당시 서울 경판본, 전주 완판본, 그리고 정읍 태인판본은 출판문화를 주도하였으며 일반 대중의 독서문화를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전시 연출과 도록 제작을 하기 위해 고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사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고고학 연구의 1차 자료, 즉 유적과 유물의 해석과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그간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유적과 유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고고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대문화의 특성들을 속속 밝히는 등 고고학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측 사료와 중국과 일본측의 사료를 적절히 인용하여 고대국가의 형성시기 및 대외관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어 적지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한과 백제의 관계사에서 백제에 의한 마한의 경략시기 및 범위의 해석에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헌 자료의 취사 선택과 활용 정도, 그리고 과학적인 절대연대측정법의 적극적인 적용과 신뢰도의 문제 등 고고학자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겨지는 몇몇 문헌사료에서 탈피하여 문헌사의 연구성과를 수용해 고고자료의 역사적 맥락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역으로 사료가 영성한 문헌사 분야에서도 고고학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양분을 섭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여호규 2018:111~112) 경청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문화를 밝혀줄 수 있는 고고 자료는 축적될 것이다. 그동안 소위 정사(正史) 위주의 고전도 다시 들춰봐야 하겠지만 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양 고전 자료를 환기시켜보고자 한다. 절대 기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해 문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고전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고고자료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전의 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주로 국문학계나 역사학계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고전에 대하여 고고학계에서 관심을 가져 학제간의 연계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전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고, 이미 고고학계에서 일찍이 다룬 바 있는 고전고고학에 대해 개관을 하며, 그 개념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전 중의 하나인 『공자가어(孔子家語)』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된 고고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고고학계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고전고고학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Ⅱ. 고전고고학의 개념

1. 고전의 개념

사전적 의미의 고전(古典)이란,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 고대의 전적(典籍),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두산동아 2013: 199). 고전이란 두 가지의 의의성(意義性)을 지닌다. 그 하나는 『좌씨(左氏)』 문공 15년 조, 『한서(漢書)』 왕망전, 『후한서(後漢書)』

1 태인 방각본의 종류는 『상설고문진보대전 후집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1796),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1796),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1797), 『사요취선史要聚選』(1797), 『대명율시大明律詩』(1800) 『공자통기孔子通紀』(1803), 『상설고문진보대전전집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1803), 『효경대의孝經大義』(1803), 『효경언해孝經諺解』(1803 추정), 『공자가어孔子家語』(1804),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1804), 『동자습童子習』(1804), 『농가집성農家集成』(1806)과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1806),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1844) 등이다. 이와같이 태인 방각본에는 문장과 사적, 공자의 전기와 어록, 농사와 구황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정읍시립박물관 2016: 20~22).

유럽전의 기사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옛 법도, 옛 제도, 옛 헌장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옛날의 귀중한 서적 또는 고대의 전적, 그리고 고대에 행하여진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서적이라는 뜻이다(양대연 1975: 7). 서양에서의 고전(classic)은 표준적이며 뛰어난 문학작품, 구미문화의 연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 및 로마 문물 전반과 문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로 고대의 전적을 뜻한다고 한다(양대연 1975: 8). 기원전 5세기 공자의 어록을 기록한 『논어』,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대화』, 『변명』 등을 가장 오래된 인류 고전으로 보고 있다(권혁래 2015: 7). 동·서양 모두 고전의 시대적 규정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근세에 속하는 것까지도 창의적으로 나라 고유의 것이라면 고전으로 포괄함이 무방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양대연 1975: 8~9).

고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고서, 전적, 고문서, 사료 등이 있다. 먼저 고서(古書)나 전적(典籍)은 옛 책(冊)으로 종이를 엮은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오늘날의 도서와 같은 개념이다. 서지계나 도서관계에서 말하는 고전적(古典籍) 또는 고서(古書)란 신서(新書)에 대비되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한국 책은 조선시대 말기(1910년), 중국 책은 청조 말기(1911년), 일본 책은 명치유신의 해를(1867년) 고서와 신서를 구분하는 가름길로 삼는다(이재철 1975: 22). 다음으로 고문서(古文書)는 대체로 인간 생활과 관련된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서로 광의의 고문서는 서책, 서적 등 글로 쓰여진 모든 문헌이 이에 속하며, 협의의 고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글로서 옛날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고문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고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료(史料)는 과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 자료로서 제1차 사료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원서(原書)를 말하고 2차 사료는 원서를 전재한 것으로 동국통감이나 동국문헌비고 등이 이에 속한다(http://encykorea.aks.ac.kr). 한편 정사(正史)는 관(官)에서 편찬한 역사이며, 야사(野史)는 재야인(在野人)이 저술한 역사를 말한다. 야사는 주로 풍속, 전설을 취급함으로써 정사의 결함을 보완해주거나 오류를 시정해주기도 하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사보다도 더 시대상을 잘 반행해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더 좋을 때도 있다고 한다(http://encykorea.aks.ac.kr).

본고에서 사용할 고전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할 '고전고고학'을 염두하고 있으며 정사 위주의 기록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고전을 고고학에 접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고전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돌, 금속, 도자기, 목간 등에 기록된 자료 또한 고전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옛 책의 분류법을 따른 과거의 기록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거라 함은 조선시대 말기를 하한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고전에 대한 논의는 1910년대를 전후하여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등장하였다. 최남선은 1910년 『조선광문회 고백』에서 한국의 전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문 수집 및 간행이 세계 학문의 발달에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권혁래 2015: 7 재인용). 고전은 박물관 진열장에 비장되어야 할 골동품이 아니며,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며, 서민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권혁래 2015: 12 재인용),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나 전문가를 넘어 일반인들이 고전을 널리 읽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고전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권혁래 2015: 6).

역사학자가 고소설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역사와 삶의 문제를 해석하거나 고전에 표현된 공간과 길을 사진과 지도로 표현하는 작업, 수많은 캐릭터, 생활문화, 지식과 정보 등을 추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가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권혁래 2015: 22~28). 이처럼 고전 문학 작품들을 통해 과거와 오늘의 삶을 견주어 보고,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정우봉 외 2013: 2). 최근에는 피터 트리거의 『경영의 실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등 경영의 고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동아일보사 2018: 94).

한국고전번역원(1965년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의 후신)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각종 고전을 번역하여 2,000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문집 1,200여 종을 편찬, 간행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한국 고전 1만종 10만 책을 조사·정리·편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한국고전번역원법에 의거한다(www.itkc.or.kr). 이 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서울대학교규장각의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 전북대학교박물관의 고문서종합DB에서도 다양한 고전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전의 자료는 풍부하며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고고학에서도 고전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2. 고전고고학사

고전고고학(classical archaeology)은 문헌 자료의 존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서양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고전고고학은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에 대한 연구로 이 두 문화는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모습속에서 사라져버렸지만 르네상스기에 이들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한국고고학사전). 독일에서도 1451년 『게르마니아』의 재발견으로 학자들은 중세의 전설보다는 고전을 사용하여 초기역사를 연구하게 되었고 독일학자 빙켈만은 고전학 내에서 미술사학을 독특한 분야로 확립하게 되어 현대까지도 문헌자료 및 미술사학이라는 두 가지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성춘택 1997: 59~63, 77).

이와 같이 고전고고학자들은 편년이나 역사자료, 과거의 신앙, 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문헌자료에 의존하였으며(성춘택 1997: 66), 고대 기념물들을 역사적 설명에 나오는 민족들과 결부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중반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된 연대측정 기술의 발명과 1859년 『종의 기원』의 출간 이후 선사고고학의 체계가 완비되는 등(성춘택 1997: 103) 서양고고학사에서 고전고고학은 18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방법론이 전개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서고고학자들이 성서기록에 의하여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통용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사회·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발굴된 유물을 건축 및 정착 패턴, 경제 변화, 정치적 역사, 종교적 풍습, 인구 밀도, 사회구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오성환 2001: 13~35). 그런가 하면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고전고고학회는 고대 중세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간의 고고학 연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

이와 같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고고학이 본격적인 학문으로 정착하기 이전의 고고학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와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역사를 정립하는 고전고고학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체계적인 고고학적 조사, 과학적인 접근, 다양한 고고학 이론이 전개되면서 고전고고학은 사양길에 접어든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고고학이 태동한 한국의 경우 발굴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해석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료의 내용을 접목하거나 비판하는 등 고전고고학은 과거 서양 고전고고학의 추세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전고고학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개념정립과 학문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고고학에서 다루는 시기는 문자의 사용여부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며, 한국의 역사고고학에서 주로 다루는 시기는 삼국시대 전기(서기 0~300년)와 후기(서기 300~668)이다(최몽룡 1989: 201~202). 기록이 풍부해지는 중세 이후의 시대상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분석과정 없이 고대문화의 실체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고고학의 시대범주에서 벗어나지만 고려시대의 청자의 생산과 유통, 석불·석탑의 양식, 조선시대의 민묘와 관방유적의 특징 등 중세 또는 근세고고학의 장르를 상정할 수 있다.

2 http://www.aiac2018.de/comgress/history(국제고전고고학회(AIAC:The internationll Assosiation for classical Archaeology)

유럽에서는 역사고고학을 그리스·로마시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고전고고학과 중세교회, 묘지, 농경지, 성채 등을 연구하는 중세고고학, 그리고 산업혁명 당시를 연구하는 산업고고학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역사고고학은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문화를 복원해야 하며, 역사고고학이 고대사와 관련된 고고학 연구에서의 문화복원에는 필연적으로 문헌자료, 민족지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고고학사전). 따라서 고전고고학은 기록물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역사고고학과 연관성이 깊으며 큰 틀에서 한국에서 역사고고학의 하위 분야에 속할 수 있다. 다만 고전고고학은 앞에서 설정한 고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고고자료의 해석에 기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고고학의 전문분야로 설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민족지고고학(ethnoarchaeology)은 고고학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인간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물질적인 자료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한국고고학사전). 한국고고학에서 시대구분과 시대명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의와 기성세대가 추구해 온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물질자료를 유기적으로 조작하는 연구태도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홍보식 2010: 323~325)을 염두할 때 고전고고학은 한국고고학사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연구분야가 될 수 있다.

3. 고전고고학의 개념, 실제와 응용

이 글에서 사용할 고전고고학(古典考古學)이란, 과거문화 연구에서 고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고고 자료를 분석하는 고고학 분야이다. 한국 고고학에 있어서의 고전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과거 동북아시아에서 간행된 정사 위주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한국 고대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유용한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로 확장하여 고전고고학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방대한 자료중에서 자료의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연구자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며,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 쓰인 자료에 대한 번역과 번역자료와의 취사선택 또한 연구자의 몫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대상이 되는 고전에 대한 분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동양의 고전이 일차적으로 선택되어질 것이다. 특정 고전에 대한 번역물이 많을 경우 그만큼 번역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훌륭한 고전 자료가 될 것이다.

개별 유적과 유물, 어느 한 시대의 시간성, 어느 한 지역의 공간성, 사회적인 현상 등 연구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에 맞는 대표 단어(key word)를 뽑아내고, 그 단어와 관련성이 있거나 연계되는 단어를 선정하여 고전 DB에서 추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선택한 단어가 찾아지면 해당 문장과 함께 원본 고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고전의 특징, 이를테면 편찬자, 편찬시기의 검토를 통해 수록 내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연구대상과 근접할수록 유용한 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전의 내용에 대한 분석절차가 필요하다.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선후 문장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제 연구자는 고고학 연구대상과 고전 자료간의 상호 비교분석을 추진한다. 선택된 고전 자료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해제, 그리고 해설이 있다면 고고 자료와의 비교분석은 수월해지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전자료에 대한 역사학적·국문학적·사회과학적 등 연계 학문의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고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연구 대상인 고고자료에 대한 해석을 재차 시도한다.

한국 고고학사에서 풀리지 않는 쟁점은 매우 많다. 당해 유적과 유물과 성격, 더 나아가 생활상과 사회상, 그리고 국가의 교체와 국가·지역간의 교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학자는 고고자료를, 고고학자는 문헌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고대사 중에서 국가의 형성과 교체기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고전 이용률은 매우 높다. 최근 백제학회가 두 번에 걸쳐 개최한 학술대회 주제인 '마한과 백제'에 한정하여 각 연구자들이 참고하였던 고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

표 1. 고고학자의 고전 참고 현황

국가	참고 고전(아라비아 숫자는 인용 횟수)		
	한국	일본	중국
한국 13명	삼국사기8, 동국여지승람3, 고려사2,문헌비고1, 산경표1,정감록1, 제왕운기1, 세종실록1, 아방강역고1, 해동역사1	일본서기12, 속일본후기1, 신찬성씨록1	삼국지8, 양직공도8, 진서7,후한서5, 남제서3,한원3, 방국사도1, 양서1,북사1, 수서1,통전1, 신당서1
일본 2명	삼국사기1	일본서기2, 일본구기1, 삼한고기1, 책부원귀1	삼국지1, 직공도1, 남제서1, 남사1,송서1
중국 2명	삼국사기1		삼국지1,후한서1, 진서1,남제서1, 송서1

〈표 1〉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정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료로서 편찬자와 편찬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고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한국 학자는 삼국사기, 일본서기, 삼국지, 양직공도를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측 고전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조선시대 이후에 간행한 고전이라도 당해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거나 관련된 사료가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학자들은 공히 한국의 고전중에서 삼국사기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학자들은 한국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본서기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둘째, 각 나라간의 과거 사실들이 서로 연계되어 기록되어 있는 고전이라는 점이다. 두 번의 학술대회 주제인 마한과 백제와 관계되는 각국의 고대 정치체를 자세하게 언급한 고전일수록 많이 참조하고 있다. 삼국사기, 일본서기, 삼국지, 양직공도, 진서, 후한서, 남제서, 한원 등은 이 시기를 연구함에 있어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대표 고전인 삼국유사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삼국유사에 관한 논저는 2002년 기준으로 약 2,300편에 이르는데, 교육학, 역사지리학, 심리학,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군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1차 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정훈 2013: 4)과 비교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와 같은 야사가 정사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당시 사회의 진실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의 전공분야, 전공 주제에 따라 고전의 이용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중·일 연구자가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구조와 성격,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 제국 편입 과정 등에 대한 연구에서 고전을 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고전고고학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고전 내용의 해석에 대해 이견(異見)이 많다는 것이다. 백제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고전 해석 중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백제에 의한 마한의 병합 시기와 병합지역을 보여주는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 섭정 49년조이다.

~ (일본군이)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 오랑캐인 침미다례를 무찌르고 백제에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구수가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맞으니 이때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

일본서기를 당시 일왕 중심 사관으로 사실을 왜곡·윤색한 기사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군사활동의 주체를 백제로 이해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신공 49년(249)의 연대를 2주갑(120년)으로 조정하여 근초고왕 24년(369)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백제 근초고왕이 이 지

3 백제학회에서는 2012년에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2013년에는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양기석 외, 2013,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임영진 외, 2014,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학연문화사). 한국, 일본, 중국 출신의 학자 21명 중 고전을 인용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7명이 인용한 고전을 정리하였다. 삼국사기의 경우 한국 13명의 학자가 8번 이용한 것이며, 일본서기의 경우, 한국학자 13명 중 12명이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을 정복하였다는 소위 정복설이 사학계에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된 각론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고고학계에서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전남북 지역의 마한세력이 백제에 완전히 병합된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며 그 시기는 6세기 중반까지 내려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헌사학에서 그린 역사상이 대세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적 자료를 그것에 그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은 위험하며, 정치사적인 변화와 물질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서로 부합하지 않은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중요하다(김낙중 2017: 300).

한편 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벼락도끼와 돌도끼'란 주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고고자료에 대한 인식을 소개한 전시는 주목할 만하다. 전시 설명문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돌도끼를 벼락도끼라 불렀으며, 벼락도끼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의 도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묘한 약효를 가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1441)을 시작으로 광해군 14년(1622)에 이르기까지 7번 확인된다. 중국 명나라 때의 약학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조선시대에는 벼락도끼를 천지조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으나, 15세기 문인 이육(李陸 1438~1498)은 벼락도끼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노련한 장인이 만든 물건일 가능성을 그의 문집 『청파집(靑坡集)』에 남겼다. 근대적 학문 체계로서의 고고학이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우연히 발견된 과거의 유물과 유적을 흔히 당대의 지배적인 자연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초자연적 산물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에서 보이는 선조들의 고고자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현대의 전시를 통하여 고전 내용을 재해석한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석곽묘(117기)의 해체조사를 통하여 장속과 관련된 고고학적 정보를 추출하고 『주자가례』에서 보이는 상례절차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다. 고고학적인 자료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유교의 전통적인 상례절차를 12단계로 구분하고 삼국시대 무덤에서 고고학적인 자료로 잔존하는 것을 비교하여 급묘(及墓)에서 성분(成墳)까지의 절차를 정리하여 무덤 축조에서 봉토조성 단계까지의 과정을 복원하고 있다(최경구 2009: 93~95).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보고된 공주 장선리 토실(土室) 유구(39기)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유구의 구조 및 형태를 분석하여 그간의 원삼국시대의 주거유형,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 사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토실 유구를 마한시대에 만들어진 주거지로 추정한 연구가 있다(이훈·강종원 2001: 138~139). 이러한 견해와 달리 장덕원은 삼국지 동이전 한조의 기록과 토실 유구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헌에서 보이는 '草屋土室'은 원삼국~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의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생각되나 공주 장선리 토실은 주거기능보다 저장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장덕원 2012: 173). 이와 같이 동일한 유적과 유구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고자료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는 연구사례라 할 수 있다.

Ⅲ. 『공자가어』의 특징과 내용

1. 공자의 생애사와 주변 정세[4]

그 동안 위인(偉人)들의 뛰어난 경영 철학을 배우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돼 왔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20인 중 공자가 3위를 차지하여(동아일보사 2018: 33~34)

4 공자의 생애사와 주변정세는 김학주의 글을 참고하였다(金學主, 2003, 『공자의 생애와 사상』, 明文堂). 공자의 생애 전후의 시대적인 배경은 西周(BC1122~BC771), 東周(BC770~BC256)로, 동주는 다시 春秋시대(BC770~403)와 戰國시대(BC402~256)로 구분된다. 공자의 생애는 주 영왕 21년(노 양공 22년)~주 경왕 41년(노 애공 16년)이다.

공자라는 위인이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신뢰성 있는 표본이며 연구대상임을 보여준다.

공자(BC551~BC479)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에 해당한다. 춘추시대는 제후들이 가장 세력이 강한 패자(霸者, 이른바 춘추 5패)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싸우면서도 주나라 천자를 받들고 외적의 침입에 힘을 모아 대비한다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명분을 잃지 않았던 시대이다. 당시 천자가 제후들을 통제할 능력을 잃게 되자 공자의 출생지인 노나라를 포함하여 진(晉)·초·제·진(秦)·오·월·송·정·위·진(陳)·채·조 등 여러 나라들이 연이어 출현하였던 시대이다.

노나라는 지금의 산동지방에 있던 나라로 주 무왕(武王)이 그의 넷째 아우 주공(周公) 단을 봉한데서 비롯한다. 삼환씨(三桓氏)라 부르는 계손씨·숙손씨·맹손씨의 세 대부(大夫) 집안의 세력이 커지면서 혼란기에 접어들기도 하지만 노나라는 주나라 왕실과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였고, 수도인 곡부(曲阜:지금의 산동성 곡부현, 공자 출생지역)는 주나라 낙읍 다음가는 당시의 문화중심지로서, 특히 예악에 관한 문물로 뛰어난 곳이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속에서 태어난 공자는 유가(儒家)라는 위대한 사상체계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즈음 송나라에는 묵자(墨子 BC501?~BC416)에 의한 묵가, 초나라에는 노자(老子 BC571~?)에 의한 도가가 성행하였다. 이 삼대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전국시대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라 이르는 수많은 유파의 사상이 화려하게 전개된다.

공자의 집안은 사(士)에 속하는 계급으로서, 위로는 귀족 대부들이 있고 아래로는 서민과 상공 계급들이 있는 중간 계층으로 주로 관청이나 귀족 집안에서 서기(書記) 종류의 낮은 벼슬을 한다. 공자는 19세 때 노나라의 위리(委吏, 창고의 물건을 관리)라는 벼슬에서 시작하여 21세 때에는 승전리(乘田吏) 또는 사직리(司職吏)가 된다. 20대 초기부터 40대에 이르는 동안에 또 다른 벼슬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 시기에 그의 학문과 사상이 날로 발전하여 명망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35세에 노나라에서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실현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소공이 도망간 제 나라를 간 후 37세를 전후하여 노나라로 돌아왔다. 정공 9년(BC501)에 중도재(中都宰: 지방장관)가 되었다. 중도는 노나라 읍 이름이며, 재는 읍장, 즉 지방장관이다(임동석 2014: 80). 다음 해 사공(司空)이라는 높은 벼슬에 임명되었다. 사공은 육경(六卿)의 하나로 토목, 건축, 교통, 치수 등을 담당하였다(이민수 2015: 14). 다음 해에 사구(司寇)로서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를 하다가 55세에는 대사구(大司寇)로서 재상의 일을 겸하였다. 이후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와 임금을 찾아 10년에 걸친 여정을 떠난다. 위나라(BC496), 진나라(BC495), 채나라(BC491), 다시 위나라를 거쳐 노나라(BC484)로 돌아온다. 남은 여생을 제자들의 교육과 만인을 위해 경전의 편찬에 바치게 된다. 그의 교과서는 후세 육경이라 부르는 시(詩)·서(書)·역(易)·예(禮)·악(樂)·춘추(春秋)의 여섯 가지가 중심을 이룬다. 현재는 전하지 않는 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경(五經)이라고 부른다.

2. 『공자가어』의 특징[5]

공자가어는 공자가 당시의 공경사대부(公卿士大夫) 및 제자들과 서로 문답한 내용을 여러 제자들이 보고 들은대로 기록한 글이다. 한 무제 때에 공안국(孔安國)이 정리하였고, 공자의 22세손 공맹(孔猛)이 위나라의 학자 왕숙(王肅, 195~256)에게 바친 자료를 왕숙이 주석을 달아 간행하게 되고, 이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수록되었으며, 당대(唐代)에 이르러 안사고(顔師古)가 예문지에 수록된 가어는 '지금 전하는 가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왕숙이 그 책 이름을 의탁하여 위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공자가어에 대한 진위 문제는 학술사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주희는 가어가 '당시의 책이다'라고 하면서 논어가 공자의 어록이라면 가어는 공자 선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송대(宋代), 청대(靑代)에도 가어의 내용이 위조되었다는 학설이 정론이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하북성 정

5 공자가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민수, 이윤화, 임동석의 저서 및 번역본을 참고하였다(참고문헌 참조).

주의 팔각랑 40호 무덤에서 가어 관련 죽간(竹簡)이 한 무더기 출토되었고, 안휘성 부양 쌍고퇴 1호 무덤에서 목독(木牘)이 출토되면서 위서(僞書)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후 공자가어는 사고전서(四庫全書)와 사부총간(四部叢刊) 등 총서류에 판본이 올라 있으며 지금은 10권 44편으로 구성되어 전하고 있다. 공자가어에는 혼인, 상례, 제례, 묘조, 오제(五帝) 등 여러 제도는 물론 상고사, 공자의 언행, 공자의 가계와 탄생, 그리고 공자의 죽음과 장제, 강학과 교육, 음악, 형벌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유가의 전적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이라고 말하며, 가어를 더하여 '오서오경(五書五經)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판본으로 『공자가어』 왕숙 주 필사본 60장, 『공자집어』의 경우 송(宋) 설거가 편찬한 판본(1899), 손성연 편찬의 신활자본(1897), 절강서국 목활자본(1877) 등이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 후기 태인 전이채와 박치유가 1804년에 방각본으로 간행하면서 공자가어가 널리 유통되었다.

공자가어가 고고자료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먼저 "연대의 정확성이다." 공자가 활동한 시기와 그 이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한은 적어도 공자의 생존 연대가 된다. 즉 춘추시대를 주요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노나라의 특정 왕조가 거론되고 있어 한국의 청동기시대 중·후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고대 정치체 형성 이전의 모습과 비교가 가능하여 한국 고대문화의 실체를 역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연나라 관련 물질문화는 춘추 후기부터 진한 교체기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문화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확산된 것은 아니며 토착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교류, 연문화 집단의 이주와 정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배현준 2017: 145~146). 즉 본고에서 다루는 이 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물질문화가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과 부합한다.

다음으로 "지리적 인접성이다." 공자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주 무대는 현 중국 산동성 일대이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 쪽으로 돌출된 산동반도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어주던 해상교통로는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연안항로, 한반도 중부에서 직접 횡단하는 횡단항로, 그리고 흑산도를 거쳐 중국 강남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단항로가 있다(곽장근 2017: 17). 산동지역은 중국 고대 문화의 발상지 중의 한 곳으로 BC3000년경부터 신석기문화가 존재했으며, 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와 용산문화(龍山文化)가 융성하였다. 춘추시대에는 철제 도구를 사용하고 정치·군사 활동의 중심지로써 고대부터 한반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산동반도는 한반도의 서쪽 황해남도와 직선거리로 약 200㎞ 떨어져 있으며, 지금도 인천항과 군산항에서 산동성으로 가는 뱃길이 있어 15시간 정도면 도착한다. 과거에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방대한 민속지이다." 먼저 공자가 역임한 승전리(乘田吏), 중도재(中都宰), 사공(司空), 사구(司寇), 대사구(大司寇) 등의 관직에 주목한다. 국가 창고를 관리한 경력, 나라의 가축을 기르는 업무, 지방 도시를 관장한 지방장관, 국토 개발 업무, 사법부의 재상 등을 역임하면서 나온 경험과 관련 지식이 공자가어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당시 주거생활, 생활용품, 장례 절차, 정치 제도 등 삶의 모습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고고자료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대외 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 춘추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제후국들 사이에 전쟁과 복속이 끊이질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섭과 교류의 산물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시기 차는 있지만 삼한 시대의 100여 개에 이르는 정치체와 백제와 신라가 이를 복속하는 과정과 비교되어 당시 지역·국가간의 교섭과 교류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단 한권의 고전인 공자가어는 고대문화를 복원하는 고고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표 2. 공자가어의 원문과 해제

자료 번호	순서	원문 (작은글씨:왕숙 주)	해제 (이민수2015,임동석2014,이윤화2016)	주제분류
①	**권1 상노 (相魯)** 노나라 관리가 되어 노나라를 돕다.	孔子初仕爲中都宰中都魯邑 制爲養生送死之節	공자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서 중도의 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산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일반제도 장제
②	〃	爲四寸之棺五寸之槨以木爲之因丘陵爲墳不封不聚土以起墳者也不樹不樹松柏 行之一年而西方之諸侯則焉	네 치 되는 관(棺)과 다섯 치 되는 곽(槨)을 만들고, 언덕을 있는 그대로 무덤을 만들되 봉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무덤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을 행했더니 서쪽 지방의 제후들이 모두 이것을 본받았다.	장제
③	〃	於是二年定公以爲司空乃別 五土之性五土之性一曰山林二曰 川澤三曰丘陵四曰墳衍五曰原隰 而物各得其所生之宜所生之物各得其 宜咸得厥所	정공은 공자를 사공으로 삼았다. 그러자 공자는 토지의 다섯 가지 성분을 구별하여 곡물을 각각 토질((산림(山林), 천택(川澤), 구릉(丘陵), 분연(墳衍), 원습(原隰))에 맞게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농경 · 생업
④	〃	季氏葬昭公于墓道之南季平子逐昭公死 于乾侯平子別而葬之貶之不令近先公也孔 子溝而合諸墓焉	계씨가 소공을 묘도(墓道) 남쪽에 장사 지냈었는데, 이 때에 와서 공자는 도랑을 파고 모든 묘를 합쳤다.	장제
⑤	〃	孔子言於定公曰家不藏甲卿大夫稱家 甲鎧也邑無百雉之城高丈長丈曰堵三堵 曰雉古之制也今三家過制請皆損之	공자가 정공에게 말했다. 경대부는 사적으로 무기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봉읍에 백치의 성을 쌓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세 집은(맹손, 숙손, 계손) 너무 지나치니, 청컨대 그 제도에 맞게 줄이도록 하십시오.	성곽 · 치수
⑥	**권1 유행해 (儒行解)** 유가를 신봉하는 대원칙과 그 조목을 실천한다는 내용	儒有忠信以爲甲胄禮義以爲干櫓 ～ 儒有一畝之宮環堵之室方丈曰堵一 堵言其小 篳門圭窬 窬門編荊竹 爲門也圭窬穿牆爲窬之如圭也蓬 戶甕牖以編蓬爲戶破甕爲牖也易 衣而出更相易衣而後可以出 并日而食	선비 가운데에 충성과 신의로 갑주를 삼고 예절과 의리로 간로를 삼으며 ～ 선비는 한 이랑 되는 면적에 낮은 담만 둘러친 집에 살며, 정문은 짚과 대나무를 얽어 사립문을 달며, 쑥대를 엮어 바라지를 내며, 옹기를 벽 사이에 끼어 창을 만들고, 옷은 식구끼리 서로 바꿔입고 출입하며,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합니다.	주거
⑦	**권1 문례 (問禮)** 예에 관한 문답 내용	夫禮初也始於飮食太古之時燔 黍捭豚古未有釜甑釋米肉加於燒 石之上熟而食之汙尊而杯飮 ～ 及其死也升屋而號告曰高某復 然後飮腥苴熟始死含以珠貝將葬苞 以遣奠以送之形體則降魂氣則上是 謂天望而地藏也氣上故望天而招在 體降故穴地而藏故生者南嚮死者 北首皆從其初也	무릇 최초의 예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고시대에는 기장은 불에 구워 먹고 고기는 날것으로 먹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집 위에 올라가 '그대는 돌아오라'고 울며 부른 뒤 입에 음식(쌀, 조개, 구슬)을 넣고 익힌 고기를 삼으로 싸서 장례를 지냈다. ～ 살아있는 자는 남쪽을 향하고 죽은 자는 머리를 북쪽에 두는 것은 모두 그 처음 생겨날 때를 좇아서 하기 때문이다. ～	음식 장제
⑧	〃	昔之王者未有宮室冬則居營 窟夏則居橧巢掘地而居謂之營窟有 柴謂橧在樹曰巢未有火化食草木之 實鳥獸之肉飮其血茹其毛未有絲麻 衣其羽皮後聖有作然後修火之利 範金冶金爲器用刑範也合土合和以 作瓦物以爲宮室戶以以燔毛曰 加火曰燔也以烹以炙煮之曰烹 之曰炙 以爲醴酪醴酒酪漿酢治其絲麻以爲布 帛以養生送死以事鬼神之曰炙以爲 醴酪醴酒酪漿酢治其絲麻以爲布帛 以養生送死以事鬼神	옛날에는 임금이라도 궁실이 없어 겨울에는 굴을 파고 살았으며 여름에는 풀과 나무를 얽어 둥지를 짓고 살았다. 불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의 열매를 그대로 따서 먹었다. 새와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데도 그 털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먹었다. 또 실이나 무명이 없기 때문에 새의 날개와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사용해 왔었다. 후에 성인이 출현하고 나서 불을 발명하자 쇠를 녹여 솥을 만들고, 흙을 구워 그릇을 만들며 궁실과 집도 만들게 되었다. 음식을 굽거나 볶거나 삶아 먹기도 하였다. 단술이나 초장도 만들며 실과 삼을 가공하여 포목도 만들게 되어 이로써 살아있는 자를 기르고 죽은 자를 보내며 귀신까지도 섬기게 되었다.	주거 음식

⑨	**권1 오의해 (五儀解)** 사람을 다섯 가지 인물형으로 구분하여 설명	公曰善哉於是廢山澤之禁 弛關市之稅以惠百姓	애공은 산림과 천택의 출입을 금하는 금령을 폐지하고 관시에 대한 세금을 없애 그 혜택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농경 · 생업
⑩	**권2 치사 (致思)** 어떠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나 사상을 표출	導之以禮樂使民城郭不修溝池不越言無踰越溝池鑄劍戟以爲農器放牛馬於原藪地廣平曰原澤無水曰藪也	예악으로 인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성곽을 수선할 필요가 없게 하고 성을 수호하는 도랑을 넘어가 전쟁할 필요를 없게 하고 칼과 창을 모두 불에 녹여 농기를 만들고, 소와 말을 들과 늪에 방목하는 것입니다.	성곽 · 치수
⑪	〃	魯有儉嗇者瓦鬲煮食瓦釜食之自謂 其美盛之土型之器型奚輕瓦顧小盆也 以進孔子孔子受之	노나라에 검소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토기 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맛이 좋다고 하고는 흙으로 만든 자배기에 음식을 담아 공자에게 드렸다.	음식
⑫	〃	子路爲蒲宰爲水備與其民修溝瀆	자로가 포재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장마가 질까 염려하여 그 고을 백성들과 함께 개천을 수축하였다.	성곽 · 치수
⑬	〃	孔子曰汝以民爲餓也何不白於君發倉 廩以賑之而私以爾食饋之是汝明君 之無惠而見己之德美矣汝	～ 네가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고 걱정한다면 어찌 국가의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구제하도록 임금에게 건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네가 먹는 음식을 먹여주고 있단 말이냐 ～	일반제도
⑭	〃	少進見有異人焉擁鎌帶素, 哭者不哀孔子下車	～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사람 하나가 허리에 낫을 새끼로 동여매고 서서 울고 있었다.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농경 · 생업
⑮	**권2 호생 (好生)** 모든 백성은 살기를 좋아한다.	初大王都豳翟人侵之事之以皮幣不 得免焉事之以珠玉不得免焉於 是屬耆老而告之曰君欲吾土地	처음에 대왕이 빈(豳) 땅에 도읍했을 때이다. 북쪽 오랑캐들이 자주 침략해오자 처음에는 짐승의 가죽을 선물로 보내고 섬겨 보았으나 면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주옥을 보내어 섬겨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죽이나 주옥이 아니라 우리의 토지였다.	대외관계
⑯	**권4 육본 (六本)** 군자 처세의 6대 근본 설명	孔子曰行己有六本焉然後爲君子也立 身有義矣而孝爲本喪紀有禮矣而哀爲 本戰陣有列矣而勇爲本治政有理矣而 農爲本	～ 자기의 몸 가짐에 여섯 가지 근본이 있는 연후에라야 군자가 되는 것이다. ～ 정치에는 이치가 있어야 하는데 농사가 그 근본이 된다.	농경 · 생업
⑰	**권4 변물 (辨物)** 사물을 분별하여 분석하는 것, 각종 사물에 대한 담화	楛矢貫之石 弩其長尺有咫咫八寸也 ～ 孔子曰隼之來遠矣此肅愼氏之矢 肅愼氏之矢也昔武王克商通道于九 夷百蠻九夷東方九種百蠻夷狄百種 使各以其方賄來貢而無忘職業於是 肅愼氏貢楛矢石石其長尺有咫 · 先王欲昭其令德之致遠物也以示 後人使永鑒焉故銘其栝曰肅愼氏貢 楛矢 楛箭栝也以分大姬配胡公而封 諸陳 · 大姬武王女胡公舜之後古者 分同姓以珍玉所以展親親也分異姓 以遠方之職貢所以無忘服也故分陳 以肅愼氏貢焉	싸리나무 화살이 새를 관통하였는데, 돌로 된 화살촉으로 그 길이가 한 자 여덟 치나 되었다. ～ 이것은 바로 숙신씨가 쓰던 화살입니다. 옛날 무왕이 상나라를 쳐서 이기고 구이(九夷)와 백만으로 길을 통하게 될 때 각각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조공으로 바치도록 해서 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했다. 숙신씨는 이 싸리나무 화살과 돌화살을 조공으로 바쳤던 것인데 그 길이가 한 자 여덟 치나 되었다. 선왕께서는 그 착한 덕으로 먼 지방의 물산이 이르게 된 것을 밝히고자 하여 후인들에게까지 보여주어서 길이 전하도록 한 것이다. 까닭에 그 화살에 글을 새기기를 숙신씨가 싸리나무 화살을 조공으로 바친 것에 대한 답례로 딸 대희를 호공에게 짝을 지어주어 진 나라에 봉하노라 했다. 옛날에 같은 성에게 보배로운 구슬을 나누어 주는 것은 친친의 의미를 펴는 것이며, 이성(異姓)에게 먼 지방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은 복종하는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까닭에 진나라는 숙신에게 나누어 주고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다.	대외관계
⑱	**권4 애공문정 哀公問政**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다	時使薄斂所以子百姓日省月考 饩廩稱事所以來百工也	적절한 시기에 백성을 사역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여러 백성을 아들같이 여기는 것이며 공장(工匠)에게는 날마다 검사하고 달마다 살펴서 일하는 실적을 보아 봉록을 주는 것은 각종 공장들을 모여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제도
⑲	〃	衆生必死死必歸土此謂鬼魂氣歸天此 謂神合鬼與神而享之敎之至也合神鬼 而事之者孝道之至孝者敎之所由生也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죽으면 몸뚱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귀(鬼)라고 하며, 혼(魂)과 기운은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신(神)이라고 부른다.	장제
⑳	**권5 자로초견 (子路初見)** 자로가 공자의 문하에 처음 들어섰을때	孔子曰括而羽之鏃而 礪之其入之不亦深乎	～ 화살 한 쪽에 깃을 꽂고 다른 한 쪽에 촉을 박는다면 그 날카롭고 갸벼운 것이 겹해져서 목표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깊어진다.	성곽 · 치수
㉑	〃	孔子對曰 ～ 然夫黍者 五穀之長郊禮宗廟以爲上盛	기장이란 곡식은 오곡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교례와 종묘에도 맨 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㉒	**권5 오제덕 (五帝德)**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의 공덕에 대한 내용	長聰明治五氣五行之氣設五量五量權 衡升斛尺丈里步十百撫萬民度四方商 度四方而無安定服牛乘馬擾馴猛獸以 與炎帝戰于阪泉之野炎帝神農氏之 後也	(황제는) 자라서는 총명하여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오량을 설치하고 만민을 무마하고 사방의 방위를 정돈했다. 비로서 소를 부리고 말을 타게 했다. ～	일반제도
㉓	〃	～ 陶漁事親 ～	～ 처음에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아 그 부모를 모셨다 ～	농경 · 생업
㉔	**권9 종기해 (終記解)** 공자의 임종과 죽은 뒤의 장례, 제자들의 상복, 애공의 뇌문, 연나라 사람들의 참관 등을 다루고 있다.	孔子之喪公西掌殯葬焉含以疎米三 貝疎粳米禮記曰稻曰嘉疏徒結反襲衣十 有一稱加朝服一冠章甫之冠冕象環 徑五寸而冂綦組綬組雜色組綬所以繫象 環桐棺四寸柏棺五寸飾翣置翣設披周 也設崇殷也綢練設旐夏也披樞行夾引 棺者崇崇牙旐旗飾綢練以旌之杜於葬乘車 所建也旌之旅緇布廣充長尋曰旐兪用三 王禮所以尊師且備古也葬於魯城北泗 水上藏入地不及泉而封爲偃斧之形高 四尺樹松柏爲志焉弟子皆家于墓行心 喪之禮既葬有自燕來觀者舍 ～ 昔夫 子言曰見吾封若夏屋者夏屋今之殿形中 高而四方下也見若斧矣從若斧者也上難 登狹又易爲功馬鬣封之謂也俗間之名今 徒一日三斬板而以封板蓋廣二尺長六尺 斬板謂斬其縮縮斬上傍殺蓋高四尺也尙行 夫子之志而已尙庶何觀乎哉二三子三 年喪畢或留或去惟子貢廬於墓六年自 後群弟子及魯人處於墓如家者百有餘 家因名其居曰孔里焉	공자의 상례에서 공서적이 염과 매장을 맡았다. 공자의 입에는 쌀과 동전 세 개를 넣었으며, 감습에는 옷을 열한 가지를 입히고 그 뒤에 조복 한 벌을 더 썼다. 관은 장보관을 썼고 패물은 다섯 가지로 된 상환에다가 인장 끈을 매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내관은 두께가 네 치이며 잣나무로 만든 외관은 두께가 다섯 치였다. 임시 건물은 장식을 하였으며 영구에는 부채의 삽을 두고 피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주나라 식이고 숭으로 꾸민 것은 은나라 식이고 조로 꾸민 것은 하나라 식이다. 이것은 오로지 선생님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것이며 또 옛날의 예법을 구비하기 위함이었다. 장지는 노나라 북쪽 사수 위로 결정했다. 광의 깊이는 샘물이 솟아 나오지 않을 만큼 했고, 봉분은 도끼 형상으로 넉 자 높이를 쌓았다. 묘 주위에는 잣나무를 심어서 표를 했다. 장례를 마치자 제자들은 묘 곁에 집을 짓고 심상으로 선생님의 복을 입는 예법을 행했다. 이 때에 연나라 사람들이 보러 왔다. ～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묘의 모양이 집 모양과 같은 것도 있고 도끼 모양과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나는 도끼 모양과 같은 것을 좋으련다'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끼 모양과 같은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마렵봉(말갈기 같은 것)이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묘를 이 모양으로 한 것은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참판의 공사를 하여 봉분을 만든 것은 선생님의 평소 뜻에 맞추어 드리기 위한 것이다.～	장제
㉕	**권10 곡례자공문** **(曲禮子貢問)** 여러가지 잡다한 예	孔子在宋見桓魋自爲石槨三年而不 成工匠皆病夫子然曰若是其靡也靡侈 死不如朽之速愈	공자가 송나라에 있을 때, 추고는 석곽을 만드는 데 3년이 지났어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두 골치를 앓고 있었다. 공자가 낯빛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왜 이다지도 사치스럽게 만드느냐. 사람이란 죽으면 차라리 빨리 썩어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장제
㉖	〃	～ 及墓男子西面婦人東 面旣封而歸殷道也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묘소를 쓰는데 남자는 서쪽으로 면하고 여자는 동쪽으로 면하게 하며 봉분을 만든 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은 은나라의 예법이었다.	장제
㉗	〃	斂手足形旋葬而無槨旋便 稱其財爲之禮	～ 사후에는 수족을 염하여 형태만 갖추고 급히 매장하되 관만 쓰고 곽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을 예라고 한다.	장제
㉘	〃	其壙掩坎深不至於泉其葬無盟器之 贈旣葬其封廣輪坎其高可時隱也	무덤 구덩이의 깊이는 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팠다. 장사 지내는 데에도 좋은 보배를 쓰지 않고 봉분을 만드는 데에도 넓은 수레바퀴 정도로 구덩이를 덮을 만하게 할 뿐이며, 그 높이도 사람이 일어서서 팔에 닿을 정도로 했다.	장제

3. 『공자가어』의 내용

Ⅳ. 『공자가어』를 통한 고고자료의 검토

공자가어에 실린 내용 중 고고학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28개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일반제도, 주거, 장제, 농경·생업, 성곽·치수, 음식, 대외관계 등 7가지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공자의 생애(기원전 6세기 중엽~기원전 5세기 중후엽)와 공자가어에 주를 달아 편찬한 왕숙의 생애(2세기 말~3세기 중엽)를 고려하여 한국 고고자료와의 비교분석은 주로 마한과 백제, 그리고 이 두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1. 일반제도

지도자나 관리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행하였던 제도에 해당하는 자료는 ①, ⑬, ⑱, ㉒이다. 먼저 자료 ①을 통해 공자는 중도라는 읍의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한 것으로 보아 당시 지방 자치가 어느정도 실현되었음을 말해준다. 백제시대에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지방을 다스리는 제도는 늦어도 백제 웅진시기부터 확인되지만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한 지방의 대표가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했다고 보는 자료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료 ⑬에서는 당시 곤궁한 시기에 백성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창름(倉廩)에서 창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름은 쌀을 저장하는 창고라 하며, 혹은 방형(方形)의 창고를 창이라 하며, 원형(圓形)의 창고를 름이라 한다(임동석 2014: 233). 선사 및 고대의 유적에서 보이는 원형 또는 방형 수혈 구덩이를 저장 공간으로 해석하는 사례와 비교된다. 자료 ⑱을 통해 당시 부역과 세금은 백성들의 의무로써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백성의 삶의 질이 달라졌음을 추정케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직접 채용한 공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인들은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㉒에서는 중국의 시조인 헌원씨 황제가 기원전 2700년 경부터 천하를 통일하고 보편화된 오량(무게를 다는 저울, 부피를 계산하는 말과 되, 길이를 재는 자, 셈을 하는 숫자) 제도를 시행하여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지방제도의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고전으로는 〈표 1〉에서 소개한 고전 이외에도 『여지도서』, 『호구총수』, 『대동지지』 등이며, 이후 근대에 들어와서는 각 지방의 읍지를 참조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위 외에도 『삼국유사』, 『동사찬요』, 『동국통감』, 『동사보유』, 『동국지리지』, 『동사회강』, 『동사강목』, 『강계고』, 『동사』, 『연려실기술』, 『해동역사』 등을 이용한다. 한국 고대 정치체의 일반제도를 보여주는 한국 고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일반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거

집의 형태와 규모를 비롯한 주거생활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료 ⑥과 ⑧을 들 수 있다. 일무지궁(一畝之宮)에서 일무는 면적이 작음을 뜻하고, 궁은 옛날에는 귀천을 막론하고 거처를 모두 궁이라 불렀으나 진한 이후에 지존이 거주하는 곳을 궁이라 칭한다(이윤화 2016: 56). 왕숙은 땅을 파서 거주하는 것을 영굴(營窟)이라 하고 섶나무를 쌓은 것을 증(橧)이라 하고, 나무에 있는 것을 소(巢)라 하였다. 노소(橧巢)를 나무 위에 지었던 가옥에서 수상(樹上) 생활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임동석 2014: 179),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정형화된 수혈 주거의



사진 1. 중국 허난성 일대 땅굴촌(http://blog.naver.com/shenmj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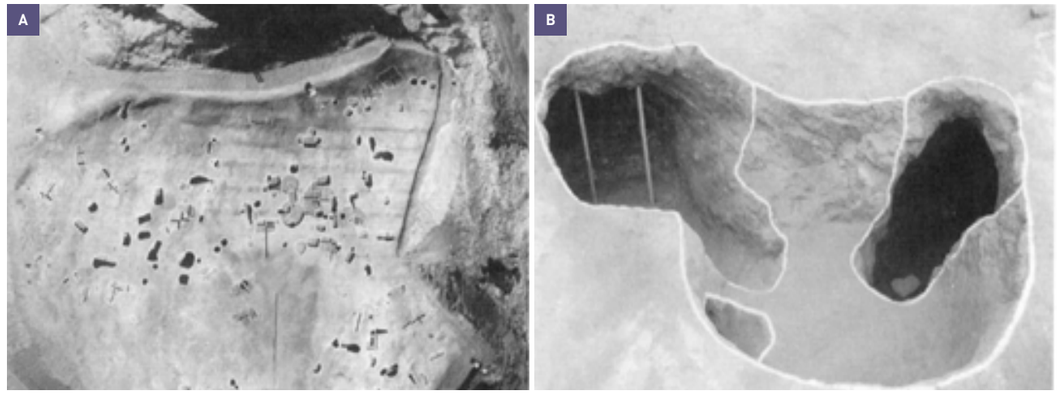


사진 2. 공주 장선리 유적(A)과 토실 12호 (B)(이훈 · 강종원 2001: 140~141).

형태는 삼국시대까지 이용하여 전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영굴은 마한시대의 흙방[土室]을 떠올리게 한다. 〈사진 1〉에서 보이는 중국 허난성 항원 일대에 위치한 땅굴촌은 4000년을 유지해온 생활방식으로 사람들은 편평한 황토 지면에서 6~7m 깊이에, 한변 10~12m의 굴을 파서 거주한다. 지금까지도 100여 개의 지하 마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http://blog.naver.com/shenmj7), 산동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참고가 된다.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에서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삼국(마한)시대 장방형 주거지 5기와 토실(土室) 39기, 수혈 유구 15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토실 유구는 지하에 토광을 파서 조성한 것이다. 1개 혹은 여러 개의 구덩이가 연결된 구조가 있고, 부분적으로 출입부, 바깥 방[외실(外室)], 딸린 방[부실(副室)] 등으로 구분된다. 수혈 유구는 저장 구덩이로 판단되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 방형, 원형, 사다리꼴로 다양하다. 생활공간인 흙방보다는 규모가 작으며,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한 단순한 구조이다(이훈·강종원 2011:119~121). 토실을 삼국지와 후한서, 일본서기 등 다양한 고전을 검토하여 마한시대의 주거지로 파악하고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 실린 '거처작초옥토실(居處作草屋土室)'기사에서 초옥토실은 장선리에서 조사된 토실유구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마한사회에서 일반화된 주거유형 가운데 하나였으며, 출현배경으로는 북방으로부터의 도입과 당시 기후조건의 변화를 염두한 자생적인 발생설로 보고 있다(이훈·강종원 2001: 136~139). 이와 달리 장덕원은 삼국지와 후한서에 실린 고대 가옥에 관한 기사를 재검토하여 공주 장선리 토실 유구는 주거 기능보다 저장의 성격으로 비정하고 있다(장덕원 2012: 173). 그러나 현전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땅굴촌과 공자가어에서 소개된 영굴로 보아 공주 장선리 토실 유구가 고대 주거 유형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3. 장제

공자가어에서 죽은 사람을 처리하고 제사 지내는 장제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자료 ①, ②, ④, ⑦, ⑲, ㉔, ㉕, ㉖, ㉗, 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①과 ㉔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자가 중도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되었을 때 여러 나라(주나라, 은나라, 하나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장제에 관한 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장례 풍습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을 정도로 중국 대륙의 문화가 한반도에 깊이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어 이외에도 태인 방각본 중의 하나인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에서는 공자에게 올리는 제사의 방식과 음식, 진설 방법 등이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오늘날 향교에서 재현하는 유교적 제사전통의 시원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신분과 재력의 차이에 따른 곽의 사용여부, 관과 곽의 크기, 묘광의 깊이, 봉분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축조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자가어에서는 무덤 지하구조의 형태로 토광, 목관, 목곽, 그리고 석곽 등이 확인된다. 자료 ㉕에서 볼 수 있듯이 석곽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묘제로 파악된다. 일반적인 무덤으로는 관과 곽을 사용하되 형편이 어려우면 관만을 사용하였다. 한국 고대의 경우 마한의 고지에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다음 단계에서 적석목관묘, 목관묘, 토광직장묘 등 새로운 문화요소가 들어서며(최완규 2017: 33~34), 목곽묘는 시신을 담은 목관과 부장품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房)과 같은 나무시설을 갖춘 무덤으로 남한지역 중서부 지역에는 2세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이재현 2016: 105~106) 묘제의 전통성과 변화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관과 곽의 규모의 경우, 자료 ①에서 보이는 네 치 크기의 관과 다섯 치 크기의 곽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1치(촌)는 1자(척)의 1/10로서 약 3cm이므로 여기에서는 자료 ㉔의 공자의 내관의 두께가 4치(약 12cm)이며, 외관의 두께가 5치인 것으로 보아 관재의 두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께의 관은 전주유씨 선산 분묘조사에서 확인되었다(윤덕향 외 2000: 49). 전주유씨 17세대부터 23세대까지의 분묘 23기가 조사되어 16세기 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약 2백년간의 무덤 양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가 올라가고 피장자의 생존 직위가 높을수록 무덤 구조는 복잡하고 정교하였다. 17세대와 18세대의 무덤은 매장부 구조가 탄곽(炭槨)-회곽(灰槨)-목곽-목관의 순으로, 19세대에는 회곽-목곽-목관의 순으로, 21세대 이후에는 회곽-목관을 주로 사용하였다. 목곽의 두께는 13~3cm, 목관의 두께는 9~6cm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얇아진다. 비록 공자의 생존시기와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조선시대의 묘제이지만 고대 묘제의 크기를 해석할 때 참고가 될 만하다.

다음은 봉분의 축조 방법이다. 자료 ㉔의 '三斬板而以封'을 통해 넓이는 2척(60cm), 길이는 6척(180cm) 크기의 나무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은 다음 흙을 넣어 쌓고 다져 굳게 하는 것을 3차례 연달아 하는 판축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축공법(版築工法)은 한층 한층 흙을 다져서 축조하는 기초공법으로 건축의 기단, 묘광의 전토(墳土), 성벽 등을 축조할 때 사용되었다. 중국 하남성 상대(上代) 조기(BC1600년경) 성벽의 판축기법이 가장 이른 예이며, 한국에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로 풍납토성이 대표적이다. 축조 방법을 보면 성벽이 지나갈 통과선을 수평으로 정지한 후 일정한 판축구간마다 협판(夾板)을 세우고 목주(木柱)로 고정시킨 후 일정한 두께로 토양을 번갈아 다지는 것이다(서울역사박물관 2002: 34).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봉분의 축조 방법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최근 발굴조사한 익산 쌍릉은 봉분 조성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사비기 백제의 왕릉급 무덤으로는 처음으로 판축기법을 사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5, http://www.k-heritage.tv).



사진 3. 공문제자수상도(이윤화 2016: 1043).

봉분의 형태와 크기이다. 일반 서민들은 언덕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봉분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 봉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자료 ②). 그러나 자료 ㉔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신분이 높은 자가 묻힌 봉분의 모양은 집 모양 또는 도끼 모양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자의 묘의 봉분은 도끼 모양으로 '馬鬣封之謂'이라 하였다. 즉 마렵봉으로서 마렵은 말갈기를 말하며(이윤화 2016: 1043), 봉토의 모양이 말갈기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3〉. 한편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말무덤(또는 몰무덤)은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이며, 섬진강 중류지역에 30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묘제로서 일부지역에서는 가야계 중대형고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곽장근 2012: 249~251)가 있다. 그리고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것은 '封'이라 하고, 나무를 심어 표시하는 것은 '樹'라 하는데, 이는 고대 사(士) 이상의 사람에 대한 장례 규정이고 일반 평민은 『예기』에 의하면 서인은 나무를 심지도 봉분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며, 『주례(周禮)』에 작위 등급으로 구봉(丘封)의 척도와 심는 나무의 수를 정했다고 한다(이윤화 2016: 640 자료 ②).

공자가어에서 주목할 만한 장제로는 자료 ④에서 보이는 도랑으로 묘역을 구분한다는 내용이다. 소공(B.C541~510 재위)이 죽은 뒤 산동 문상현에 있는 노나라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내용으로 보아 왕의 묘역이 따로 있었으며, 구덩이를 둘러서 묘역을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마한 시기에 보이는 주구묘와 분구묘, 특히 다장묘를 특징으로 하는 분구묘와 유사한 묘제에 대한 설명이다. 일정한 공동 묘역에 죽은 자가 생겨 추가할 경우 연접하여 무덤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다(임영진 2015: 22~23). 이러한 다장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적인 유대속에서 성행하였으며, 다장의 분구묘가 성행하였던 지역은 농경이 발전한 지역으로 분구묘 사회는 노동집약적인 농경의 특성상 혈연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견해(임영진 2014: 38)와 일맥상통한다.

4. 농경 · 생업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농경 또는 일반 생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 ③, ⑨, ⑭, ⑯, ㉓에서 확인된다. 먼저 자료 ③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자는 5토((五土), 왕숙은 산림(山林), 천택(川澤), 구릉(丘陵), 분연(墳衍), 원습(原隰)으로 구분))라는 각각의 토질에 맞추어 작물을 재배하는 선진 농법을 보급하였다. 5토 중 산림과 천택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하였으며(자료 ⑨), 소위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관념이 이 때에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자료 ⑯). 농업 이외에도 일반 서민들은 토기를 만들거나 물고기를 잡아 생업을 유지하였다(자료 ㉓). 한편 자료 ⑭의 '人焉擁鎌帶素'에서 보이는 서민의 모습이다. 일본 나리타시 쇼휴쿠지(正福寺) 1호분에서 출토된 낫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농부 하니와(정읍시립박물관 2017: 103)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다.

5. 성곽 · 치수

나라를 방어하거나 지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성곽을 축조하고 홍수를 대비하여 댐을 만드는 광경은 자료 ⑤, ⑩, ⑫, ⑳에서 확인된다. 당시 춘추시대에는 왕의 세력이 미약하여 경대부들의 권력 찬탈이 많이 이루어진 시대로, 경대부들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사병을 두고 성을 쌓아 세력을 과시하였으며 제후국들 사이에 전쟁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자료 ⑤). 따라서 공자는 왕권을 강화하여 성곽을 폐하고 칼과 창을 불에 녹여 농사 도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자료 ⑩). 남한 지역에서 고대 성곽의 개념은 부여 송국리형 취락, 울산 검단리 유적 등 청동기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토성 또는 석성과 같은 비교적 높은 성벽은 백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조·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경지의 관리와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개천을 수리하고 보를 쌓는 치수사업도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자료 ⑳),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에 주목한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흘해니사금 21년 조에 '始開碧骨池'란 기사를 보통 백제 비류왕 27년(330)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음식

무릇 최초의 예는 음식에서부터 비롯한다는 자료 ⑦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음식은 장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음식문화의 변화를 자료 ⑧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이 출현하여 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불을 이용하여 굽고, 볶고, 삶는 등 다양한 음식 조리를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료 ⑪을 통해 당시 일반 서민들은 음식을 조리하고 담기 위하여 흙으로 만든 솥, 자배기 등 토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마한 주거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 유물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자료 ㉑에서 보이는 오곡(五穀)으로는 흔히 기장(黍), 피(稷), 콩(菽), 보리(麥), 쌀(稻)로써 가장 일반적인 농경 작물이며, 기장을 제일로 여기는 당시의 풍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고전인 주례, 예기, 관자에서는 오곡 중 기장, 피, 보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기장, 콩, 보리, 쌀, 조'가 언급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확인된 곡물자료는 신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153개 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장, 피, 콩, 보리, 벼, 조, 수수, 팥, 밀, 도토리, 밤 등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06: 304~306). 이와 같이 동양에서 고대부터 취급해온 5곡은 거의 비슷하며, 실제로 유적에서 5곡을 비롯한 다양한 곡물이 출토되었다.

7. 대외관계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대외관계의 내용은 자료 ⑮와 ⑰을 들 수 있다. 춘추시대에는 제후국들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주변 세력들의 잦은 침략이 있었다. 여기에서 보이는 적인(翟人 또는 狄人)은 중국 북방지구에서 활동하던 소수 민족으로, 흉노의 전신으로 보기도 하지만(임동석 2014: 330), 자료 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중국 동쪽에는 9개의 종족과 100여 개의 이적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주변 소수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설원(說苑), 회남자(淮南子), 전국책(戰國策)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며,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구종으로 "田畝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라 하였고, 구이 중의 하나를 한반도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임동석 2014: 557). 여하튼 당시 침략세력을 아우르기 위하여 짐승의 가죽이나 구슬을 주어서 달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토지 또는 땅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나라 무왕은 복속지역에 대해 조공품을 요구하였는데, 사료 ⑰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숙신씨는 조공품으로 화살을 바쳤으며, 주 무왕은 호공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진나라에 봉하는 등 답례하였다. 당시 제후국들에게 보배로운 구슬을 하사하여 친친의 정치를 폈으며, 먼 지방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복종케 하는 것이 대외 교섭의 일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자료 ⑰에서 볼 수 있는 명문이 있는 조공품은 백제 근초고왕이 일왕에게 내린 칠지도에서 엿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백제가 마한을 복속하면서 마한의 재지수장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 위세품이 많이 출토되었다. 4세기대 백제는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고 재지세력인 수장에게 위임권을 부여하고 공납을 바치게 하는 간접지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노태돈 2014: 68~81). 이러한 위세품의 분여와 소유에 나타난 지방지배 방식은 한성기 백제 중앙세력이 주변세력을 백제 국가체제로 편입시키거나 지방세력을 회유·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세품으로는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의 착장형 위세품으로 지역의 세력규모에 따라서도 위세품의 종류와 질이 달랐다(권오영 2007: 242).

위세품과 조공을 통한 국가 교류는 일본 고대국가인 야마토 정권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구로즈카 무덤(黑塚古墳)에서 출토된 33점의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은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의 기록에 나오는 위(魏) 황제가 왜(倭)의 여왕에게 하사한 동경백매(銅鏡百枚)라는 설이 있으며(국립경주박물관 2015: 16), 고바야시 유키오(小林 行雄)는 「동범경론(同范鏡論)」에서 동범거울이 각지로 유통된 경위를 야마토 왕권이 나누어준 것으로 상정하고 분배체제의 성립을 고훈시대의 시작과 연결지었다(국립경주박물관 2015: 24). 이와 같이 공자가어에서 보이는 나라간의 문물을 통한 교류와 교섭은 한·중·일의 고대 국가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문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현존하는 모든 한국사적(韓國史籍)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는 삼국사기, 그 다음이 삼국유사로 보는 것이(이병도 1996: 1) 일반적이지만 이 두 권의 고전이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에 고대사를 다루는 고고학자에게는 고전 이용의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전은 찾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며, 고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만큼 친절한 번역서가 DB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고전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고고자료를 해석하고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고전고고학이다. 서양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르네상스기에 고전고고학의 열풍이 불었으며 성서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서고고학의 연구 성과

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국제고전고고학회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고고학이 늦게 태동한 한국고고학은 초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전을 통하여 고대사 및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고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대 정치체의 형성, 국가의 교체와 국가간의 교섭과 교류 등에 대해 각론이 많으며, 풀리지 않는 쟁점이 즐비하다.

〈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고학자들이 참고하는 한·중·일의 고전은 주로 정사를 위주로 한 30여 종에 불과하다. 정사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그 중 『공자가어』를 통해 고전고고학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자가어』에 실린 고고자료와 연관성 있는 28개 자료를 선정하고 주거, 장제, 대외관계 등 7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주제에 맞는 국내 연구 성과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고전고고학에 있어서 고전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전은 우리 곁에 즐비하며, 풍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DB화 되어 있고, 이런 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전 내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고고 자료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과거문화의 복원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지만 대부분 역사학계나 국문학계, 그리고 서지학계에서 주로 다루는 각종 고전들을 고고학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전 DB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고전고고학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국 사료인 25史와 13經, 新修大藏經 등 엄청난 양의 중국사료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아래아 흔글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조법종 2000: 264~265). 1990년대 중반이후 꾸준하게 구축된 디지털 역사자료의 등장은 고대사 연구분야에서도 연구방법론적 관행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주성지 2016: 67~68).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역사자료는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기 수월하지만 사료의 전후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사료를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학계가 공히 엄중한 사료비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주성지 2016: 69~70).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행정자치부 외 2017: 4). 공공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빅데이터 포털(http://bigdata.go.kr)을 통해 공유하거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석과제를 의뢰할 수 있는 상시 창구(혜안 www.insight.go.kr)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약 6만개에 이르는 무형유산 온라인 목록화 시스템 이치피디아(ICHPEDI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cyclo PEDIA)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문서 특징 추출, 문서 군집화, 그리고 문서 분류 기법[6]을 이용한 사례가 주목된다(이정송 2017: 3). 이정송은 문서 군집화를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s)과 입자 군집 최적화(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의 장점을 이용한 GA와 PSO 군집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무형유산 문서의 시대적(時代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이정송 2017: 4). 시대적 분석은 과거 문화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시기의 사회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및 문화의 진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또한 과거

6 문서 특징 추출이란 덱스트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계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재표현해 내는 것을 말하며, 문서 군집화란 대량의 문서들을 유사한 문서들로 그룹화하여 특정 주제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정보 검색 분야 뿐만 아니라 문서 요약, 주제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정송 2017: 3~4).

의 흐름을 통해 미래의 사회 및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이정송 2017: 14).

빅데이터 분석이 민속지 연구에 유용함을 피력한 강정원에 따르면 민속지적 연구는 자연스러운 관찰과 면담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료 수집 환경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강정원 2017: 223). 그는 민속인류학자에게 멀티미디어 정보나 페이스북 등의 자료 등 빅데이터는 규모와 다양성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민속지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료에는 속담이나 전설 등의 구비 전승물이나 일기 등의 개인 문헌, 의식주 생활과 그 사용 대상물,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저장해 둔 여러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강정원 2017: 229). 고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고학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 기관·단체에서 구축한 고전 관련 정보 DB는 훌륭한 빅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고전고고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문

- 黃杰, 1996, 『孔子家語』(영인본), 中國子學名著集成編印基金會, 불함문화사

원문 번역본

- 楊朝明 · 宋立林 主編, 이윤화 번역, 2016, 『孔子家語通解』, 學古房
  – 四部叢刊 영인 명(明) 황노증의 覆宋本을 저본으로 하고, 四部備要本(중화서국), 四庫全書本(상해고적출판사), 공자가어(동분본), 공자가어(옥해당본) 등을 참고하여 교정
- 王肅 撰, 林東錫 譯主, 2014, 『공자가어』 1 · 2 · 3
  – 공자가어의 여러 판본 四部備要本(1989, 上海), 四庫全書本(影印本), 新編諸子集成本(1978, 臺北), 諸子百家叢書本(1990, 上海), 漢文大系本(1978, 臺北) 등을 대조 비교하여 완역
- 이민수 옮김, 2015, 『공자가어』, (주)을유문화사
  – 상해 교경산방(校經山房) 간행본과 대만 세계서국(世界書局) 간행본을 대본으로 번역

참고문헌

- 강정원, 2017, 「빅데이터와 민속지」 『民俗學硏究』 제40호, 국립민속박물관, p223,229
- 국립경주박물관, 2015, 『일본의 고훈문화』 특별전 도록, p16,24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 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 집성』, pp304~306
- 권오영, 2007, 「고고자료로 본 지방사회」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p242
- 권혁래, 2015, 「고전 대중화의 현재와 미래」 『민족문화』 45, 한국고전번역원, pp6~7, 12, 22, 27~28
- 곽장근, 2013, 「任那四縣과 己汶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pp249~251
- 곽장근, 2017, 『백제문화의 꽃 전북의 해양문화』, 전라북도,한국고전문화연구원, p17
- 김낙중, 2017, 「한국고고학에서 기원과 계통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제102집, 한국고고학회, p300
- 金學主, 2003, 『공자의 생애와 사상』, 明文堂
- 노태돈,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pp68~81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18, 「DBR이 자주 거론했던 키워드 몇달 후엔 검색 트렌드로 자리잡아」 『DBR』 NO244, p94
- 두산동아, 2013,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p199
- 裵炫俊, 2017, 「춘추전국 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pp.145~146
- 서울역사박물관, 2002, 『풍납토성』 특별전 도록, p34
- 성춘택 옮김(브루스트리거 지음),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pp59~63, 66, 77, 103, 236~237
- 양기석 외, 2013,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梁大淵, 1975, 「古典의 定義와 그 內容的 分類」 『민족문화』 1, 한국고전번역원, pp7~9
- 여호규, 2018, 「삼국형성기 문헌사와 고고학의 접점」 『한국상고사학보』 제100호, 한국상고사학회, pp.111~112
- 오성환 역(이스라엘 핑컬스타인 · 닐 애셔 실버먼 지음), 2001, 『성경:고고학인가,전설인가』 까치글방, pp13~35
- 윤덕향 · 이종철 · 이민석, 2000, 『완주 둔산리 전주유씨 선산 분묘조사, 조선시대 무덤과 껴묻거리』 전북대학교박물관, p49

참고문헌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익산쌍릉」현장제공자료, p5
- 이병도 역주(김부식 지음), 1996,『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p1
- 이정송, 2017,『GA와 PSO 군집화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무형유산문서의 시대적 분석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14
- 이정훈, 2013,『기사 재배치를 통한 삼국유사 주제의식 고찰』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
- 李在賢, 2016,「木棺 · 木槨 · 石槨墓의 構造 比較」『韓日의 古墳』, 第4回 共同研究會 資料集, pp105~106
- 李載喆, 1975,「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민족문화』1, 한국고전번역원, p22
- 이훈 · 강종원, 2001,「公州 長善里 土室遺蹟에 대한 試論」『韓國上古史學報』제34호, 한국상고사학회, pp119~121, 138~139, 140~141
- 임영진 외, 2014,『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 임영진, 2014,「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p38
- 임영진, 2015,「마한 분구묘의 조사, 연구 성과와 과제」『마한분구묘 비교 검토』, 학연문화사, pp22~23.
- 장덕원, 2102,「三國志 韓條의 '草屋土室'에 대한 一考察」『중앙고고연구』제10호, 중앙문화재연구원, p173
- 정우봉 외 기획위원, 2013,『초등논술필독서 고전』, 두산동아, p2
- 정읍시립박물관, 2016,『조선출판인쇄문화의 판도라, 태인방각본』특별전 도록, pp20~22
- 정읍시립박물관, 2017,『한일문화교류전, 이역만리 같음과 다름』특별전 도록, p103
- 조법종, 2000,「인터넷을 이용한 韓國古代史 關聯史料의 검색과 활용 –中國 25史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18, 한국고대사학회, pp264~265
- 주성지, 2016,「한국고대사 관련 디지털 역사자료 구축의 성과와 과제」『한국고대사연구』84, 한국고대사학회, pp67~70
- 최경규, 2009,「삼국시대 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葬俗」『東亞文化』7號, pp93~95
- 최몽룡, 1989,「1980年代의 歷史考古學」『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pp201~202
- 최완규, 2017,「전북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전북가야를 선언하다』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호남고고학회, pp33~34
- 행정자치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공공분야 사례로 이해하는 빅데이터』, p4
- 홍보식, 2010,「역사고고학 연구 동향과 전망」『역사학보』제207집, 역사학회, pp.323~325

인터넷 사이트 자료

- 국제고전고고학회(http://www.aiac2018.de/comgress/history)
-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http://www.k–heritage.tv 익산 쌍릉 발굴조사보고 2018)
- 한국고고학사전(http://portal.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http://blog.naver.com/shenmj7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4, December 2018, pp.170–191.
Copyright©20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review of Classical Archaeology

Lee, Min Seok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Corresponding Author : museum1@korea.kr

Abstract

Until now, the Korean archeological community has only been able to introduce the findings of classical archaeology developed in the West, and it also suffers from a lack of concepts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domestic archeological community also started to develop later than that of the West, when it began to analyze ancient history and relics through the classic works of history titled Samguk sagi (三國史記) and Samguk yusa (三國遺事). Furthermore, it is actively utilizing the Chinese classics, such as the Samgukji (三國志) and Huhanseo (後漢書), as well as certain Japanese classics such as Ilbonsegi (日本書紀). Due to the total lack of domestic classics, however, there are few details about the formation of ancient polities, national changes, and inter-country negotiations and exchanges, as well as numerous other unresolved issues.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revamp classical archaeolog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cept of classical means 'all records made in the past' in the shallow sense, while the meaning of the historiography means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taxonomy of the old book." Classical archaeology is a field in which the classics are analyzed and interpreted so as to study the culture of the past. This section has set up a wide range of classical categories, and has found that the classics can be used in a meaningful way in classical archaeology through the use of the Gongjagae (孔子家語).

The use of the classics in classical archaeology could produce significant results if the relevant DB is managed by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sing proper techniques of analysis including big data analysis.

Keywords Archeological artifacts, Classics, Classical Archaeology, Gonggagae(孔子家語), Big Data.

Received 2018. 09. 29 ● **Revised** 2018. 10. 25 ● **Accepted** 2018. 11. 09